

조선동북단지역산 접류 채집기(제18~19도판)

석주명

먼저 본문에는 여행 중에 채집한 신종, 신이상형(新異常型) 및 기형 등의 개체는 취급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지난 여름에 조선의 가장 고지대인 백두산 지방을 채집했기에 올 여름(1934)에는 위도로 보면 백두산 이북, 조선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을 채집하기로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함경북도 회령, 종성, 은성, 경원, 경성으로 이 다섯 군(五郡)은 다름아닌 북변육진(北邊六鎭)의 땅이다. 회령 웅기 간의 철도 도문선도 작년 여름(1933년 8월) 전부 개통되었다. 두만강을 따라 철도 연선 지역의 채집은 매우 편리해진 것으로 이와 같은 코스로 채집하는 사람은 철도가 전면 개통된 이후로는 아마 우리가 처음일 것이다. 해당 지방은 일본, 만주, 러시아 삼국의 국경 지역인 만큼 미리 지도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의 다섯 지역에 있는 주요 경찰서장 앞으로 그 일정표를 첨부해 신변 보호를 의뢰하는 공문을 학교에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채집 지역 곳곳에서 지방 경찰서장을 방문해 종종 편의를 제공받았다.

박물표본 채집 여행 일정표

7월 20일(금) 오후 1:35 개성 출발, 익일 오전 10:55 회령 도착

21일(토) 회령 부근 채집

회령 숙박

22일(일) 오봉산 채집

동(同)

23일(월) 학포역 부근 및 세계봉 채집

상삼봉 숙박

24일(화) 삼봉동 부근 채집

동(同)

25~26일(수, 목) 종성 부근 채집

종성 2박

27~31일(5일간, 금~화) 남양, 풍서동, 은성 등 조선극북지역 채집 5박

8월 1일(수) 혼용 부근 채집

경원 숙박

2일(목) 경원 부근 채집

동(同)

3일(금) 신아산 및 아오지 부근 채집

아오지 숙박

4일(토) 하여평 및 경흥 부근 채집

경흥 숙박

5일(일) 하여평 및 청아 부근 채집

서간리 숙박

6일(월) 옹기봉 채집

웅기 숙박

7~8일(화, 수) 서수라 및 난도 등지 채집

미정

9일(목) 아오지, 장안동 간 채집

장안동 숙박

10일(금) 장안동 행영 간 채집

행영 숙박

11일(토) 행영, 회령 간 채집

오후 6:47 회령 발, 개성 직행 예정

이렇게 일정표를 짜긴 했으나 날씨나 그 외의 사정 등으로 예정대로 진척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실 코스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1) 무산봉 (2) 중도동 오봉산 부근 (3) 회령 (4) 오국성지 (5) 세계봉 (6) 상삼봉 (7) 종성 (8) 동관 (9) 남양 (10) 풍리 (11) 풍서동 (12) 은성 (13) 훈용 (14) 경원 (15) 금월동 (16) 신아산 (17) 웅기 (18) 웅상동 (19) 서포항동 (20) 서수라 (21) 난도 (22) 나진 (23) 대초도 (24) 용정 (25) 주을 등 모든 지역에서 채집했다. 상세한 것은 후기 일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일정표 대로 7월 20일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다. 준비라고 해도 채집 기구, 나프탈렌, 약품 및 서적 몇 권 등 최소한 갖춰야 할 몇 가지였다. 무엇보다 인가 부근을 걸을 것이기에 특별히 요란한 준비는 필요치 않다. 원래 인가에서 떨어진 위험지역, 예를 들어 백두산 방면 같은 곳에서는 도를 넘을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즉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무언가를 준비할 때 ‘대는 소를 겸한다’는 말처럼 넉넉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작년에 백두산을 등산할 때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준비 탓에 고생을 했었다. 다만 이번 여름 코스처럼 인가 근처를 걷는 경우에는 결코 야단스레 준비할 필요는 없다. 지나친 준비가 오히려 위험천만인 경우도 있다.

7월 20일(금) 흐림

예정대로 출발하기 위해 1학기 마지막 직원회의도 빠질 생각이었는데 날씨가 나쁘다. 비는 아니지만 간신히 내리지 않는 상태다. 아무튼 올해 날씨답다고나 할까? 한달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도무지 그칠 기미가 없다. 목적지는 수 백리 떨어진 곳으로 더욱이 조선 주요부인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원래 비가 적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나마 지금 내리지 않는 게 다행이다. 만약을 위해 해당 지역 인삼전매국 측후계에 물어보니 회령 지방은 요즘 흐린 날씨라고 한다. 주저하지 않고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1시 51분 개성 발, 오후 3시 21분 경성 착. 경성에서 물건 구입. 오후 5시 23분 경성 발. 이 기차는 상삼봉행 급행열차로 급행권이 필요하다. 먼저 3시 반 경성 도착 직후에 급행권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침대권을 구하려 했다. 그러나 학교 여름 방학이 시작된 시기라 함북 지방으로 가는 귀향 학생들과 그 지역 인사들이 많아 침대권은 거의 이틀 전에 매진된 상태였다. 때마침 하단에 좌석 하나가 요금 미불로 비어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에게 침대 하나는 쓸모가 없는 것이라 보통객차에서 견뎌보기로 했다. 어쨌든 내일 아침부터 채집해야만 하는 신세, 기차 안이기는 하나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 그런데 흔한 보통객석조차 얻어결릴 것 같지 않다. 결국 승객이 너무 많은 탓에 객차 하나를 여분으로 나중에 연결시켜서 간신히 두 사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p. 254 지도 채집지 약도

기차가 달리기 시작했고 약 한 시간쯤 지나 맞은 편 좌석에 앉아있던 두 명의 중학생이 고향 웅기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기에 이것은 기회다 싶어 전혀 미덥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모한 듯한 우리의 웅기향 및 난도(卵島) 탐험 계획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여러 가지 물어보는 가운데 그 섬에는 교목은 없고 초본뿐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상대가 아무리 나이 어린 중학생이라곤 해도 그들의 말은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결국 대암동(채집지 지지도 참조)에서 목선이라도 세내어 이틀 간 난도(卵島)와 적도(赤島)에서 채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의 채집 목적물은 주로 나비였지만 특수 지역, 예를 들어 난도 같은 곳에서는 동물이라면 무엇이든 채집하기로 했다.

7월 21일(토) 흐림

다음 날 아침, 기차가 주을을 지났을 무렵, 지도를 보고 있던 나는 문득 무산령 채집을 시도하고 싶어져 곧바로 둘이 합의를 보았다. 오전 10시 5분 창평 도착. 창평역에 하차해 스무 마을 정도 떨어진 무산령에서 채집을 시도했지만, 흐린 날씨 탓에 큰 수확은 없었다. 급기야 가랑비까지 내리기 시작해 채집 중지. 여행 안내서를 꺼내보니 오후 1시 18분에 북행 기차가 있어 30분 가량 뛰어서 겨우 기차를 탈 수 있었다. 차 안에서 오봉산 채집을 기대해본다. 회령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그럴 필요 없이 오봉산에 가장 가까운 회령 바로 앞 중도동에 하차하면 된다. 결국 중도동에 머물기로 하고 오후 2시 9분 중도에 도착해 하차. 흐린 하늘에 바람마저 불어 할 수 없이 여인숙에 들어가 잠시 쉬었다. 이 집이 이날 밤 숙소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 군이 코를 골기 시작한다. 오늘이 여행 첫째 날이다. 벽촌 여인숙 한 구석에서 코고는 일행 옆에서 능률이 오르지 않았던 무산령 채집을 연상하는 일은 유쾌하지 않았다. 심심해서 포충망을 쥐고 대조덕산 기슭을 소요했다. 그 보람이 있어 물빛진꼬리부전나비(ミヅイロフナガシジミ) 1개체를 채집할 수 있었다.

7월 22일(일) 맑음

한밤중부터 북풍으로 시달리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주재소 전화로 회령 공의(公醫)를 불렀다. 무리하는 것은 장기 여행에는 좋지 않기에 결국 모든 일을 동행인 장 군에게 맡기고 나는 잠시 왕진 온 공의의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다. 중도동에서 회령까지는 딱 3리, 길도 일등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왕복 자동차 요금이 일금 8원이라니. 여행 첫 날이라 돈은 지니고 있어 다행이었지만 3리 왕복에 8원은 꽤 타격이었다. 중도동에 남겨진 장 군은 혼자서 채집하고는 오후에 병원으로 왔다.

7월 23일(월) 맑음

하룻밤 정양으로 다소 회복된 것 같아 체력을 시험할 요량으로 부근을 채집하고 좀 더 자신이 생겨 오국성지 쪽으로 가보기로 결정했다. 아플 거면 이렇게 치료 기관이 갖추어진 곳에서 아파야 한다. 오전 11시 5분 회령 발, 11시 53분 계림 착. 역에서 약 6킬로미터 되는 오국성지 부근에서 채집을 시도했다. 부근 지형은 몹시 양호했고 붉은점모시나비(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1개체와 연주노랑나비(ベニモンキテフ) 5,6개체를 채집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오전 중에 왔으면 더 많이 채집했을 것이다. 오후 5시 12분 계림 출발, 오후 5시 45분 회령 도착. 퇴원해서 여관에 묵었다.

7월 24일(화)흐림

오전 6시 발 북행 기차 탑승시간에 늦어 어쩔 수 없이 별도의 안을 세웠다. 오전 6시 35분 회령 출발, 오전 7시 3분 중도 도착. 역에서 걸어 약 6킬로미터. 오봉산 채집을 시도하기 위해 등산했으나 약 3분의 1 지점에서 비를 만나 이 또한 중지. 이 날 잡은 오색나비(ガイマコムラサキ) ♂ 1개체가 유일한 위안거리다. 오후 2시 9분 중도 발, 기차 안에서 여행 안내판을 보니 이 기차는 회령에서 32분 간 정차한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여관에서 짐을 갖다 달라고 해 이 기차에 타기로 했다. 오후 2시 28분 회령 도착, 오후 3시 회령 출발, 오후 3시 23분 학포 도착. 학포역에 내려 근처의 세계봉을 둘러보니 지형이 좋지 않아, 부근에서 약 한 시간 반 채집했다. 상제나비(エゾシロテフ)가 많이 잡혀 기분이 좋았다. 오후 7시 28분 학포 출발, 오후 8시 상삼봉 도착

7월 25일(수) 흐림

오전에 근처에 있는 산에서 채집했지만 흐린 날씨 탓인지 성적이 좋지 않았다. 오후 4시

25분 상삼봉 출발, 오후 4시 14분 종성 도착

7월 26일(목) 맑음

오늘은 개성을 출발한지 정확히 7일째 되는 날로 어제까지의 채집은 예상했던 분량의 5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종성에서도 큰 기대 없이 산으로 나섰다. 부근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채집하던 중에 우연히 좋은 장소를 찾아냈다. 그곳은 신사참배길로 신사를 지나 그 뒷산까지였다. 특히 만주산어리표범나비(フチグロヘウモンモドキ)를 제법 많이 잡아 기뻐다. 준비해 간 포장용지가 부족해서 가지고 간 점심을 다시 가지고 돌아와 오후에 재차 길을 나섰다. 이번에는 산 정상까지 올랐고, 그 도중에 장 군은 물빛긴꼬리부전나비 1개체를 잡아 즐거워했다. 정상에서 까마귀부전나비(カラスシジミ)와 북방까마귀부전나비(ヒメツマアカカラスシジミ) 다수를 채집해서 유쾌했다. 이 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잡은 채집품만도 나중에 세어보니 501개체였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흰뺨눈나비(シロジャノメ)와 봄처녀나비(ヒメヒカゲ)였다. 오후 4시 41분 종성 출발, 오후 5시 3분 동관 도착

7월 27일(금) 비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곳 사람의 얘기로는 올해처럼 많은 비가 내린 해는 기억에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그 지방의 집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곳 지방에는 암키와뿐으로 수키와를 사용하지 않는다(암키와, 수키와는 조선어로 일본의 기와와는 다르다.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암키와 줄 사이에 수키와를 얹혀 놓아 강우와 강설을 충분히 막아준다) 그리고 덧문 바깥 측에는 종이를 바른다. 이와 같은 점을 살펴보다도 이 지방은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많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

7월 28일(토) 비 온 뒤 흐림

오전 9시 반쯤 겨우 비가 그쳤다. 비는 그쳤지만 흐린 하늘과 강풍으로 채집할 날씨는 아니다. 어쨌거나 명목상의 채집으로 포충망을 들고 옛날 본진족(本眞族) 발상지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1리 가까운 거리의 산성산(山城山)에 올랐다. 채집 지형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곳으로 기회가 있다면 다시 와도 좋을 곳이었다. 오후 5시 8분 동관 출발, 오후 5시 38분 남양 도착

7월 29일(일) 비

7월 30일(월) 비

7월 31일(화) 흐림

오늘 아침부터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흐렸고, 게다가 연일 내린 비로 진흙탕이 된 길을 걸으면서 채집을 할 수도 없으니, 고무 장화를 빌려 대암도문(對岩圖們) 시가지로 보기 위해 외출했다. 그 시가지는 진흙의 바다 그 자체로 긴 장화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다. 도문에 나간 김에 장 군의 서해부임과선염 치료를 위해 회막병원에 들렀다. 오후 3시경 형식적으로 약 한 시간 가량 혼자서 남양 부근의 산에서 채집을 했다.

8월 1일(수) 흐린 후 가랑비

조선극북지역인 남양, 풍서동, 계성 등지에서 5박하며 채집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비로 인해 수확 없이 남양에서 4박! 날씨가 회복되기를 남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채집 여행이 아니다. 비는 내리지만 유람의 의미로 외출하기로 한다. 여기서 프로그램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마음 가는 곳으로 떠나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으면 그만이다. 좋은 성적을 냈던 종성에서의 채집만을 떠올려도 방법이 없다. 오후 1시 10분 남양 출발, 오

후 1시 36분 은성 도착. 여관에 들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무튼 은성에서는 2박 이상은 머물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날씨가 화창해진다고 해도 부근엔 양호한 채집 장소가 안 보인다. 전답뿐이다. 모레 아침에는 싫든 좋든 무조건 출발하기로 했다.

8월 2일(목) 가랑비 내리고 흐림

오후가 되어 비가 그쳐 다시 형식상 채집에 나섰다. 채집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이는 장소까지 거리는 30정(町)이나 된다. 흐린 날씨로 도로가 나빠서 철도 선로를 걸어서 왕복했다. 밤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농사는 다 망쳤다는 주민들의 탄식에 우리의 채집 불량성적을 불평할 수도 없었다.

8월 3일(금) 흐린 뒤 맑음

아침에 일어나 보아도 아직까지 개이지 않았다. 하지만 예정대로 출발하기로 했다. 오전 8시 58분 은성 출발, 오전 10시 10분 경원 도착. 버스로 읍내에 도착해 우연히 그 지방에서 곤충 채집으로 유명한 桂榮 씨를 만났다. 지리에 관해 가르쳐 주어 고마웠다. 비가 내리지 않아 점심을 먹고 산에 올랐다. 약 한 시간 채집했는데도 재미가 없었다. 오후 3시, 갑자기 날씨가 화창해지더니 지금까지 내린 비는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일주일 계속 비 날씨였던 뒤였기 때문에 오후 3시 무렵임에도 불구하고, 그 완만한 언덕에 나비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때로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가 등장해 우리 두 사람에게 생기를 주었다. 도로의 물웅덩이 옆에는 많은 접류, 특히 소형의, 그 중에서도 부전나비류가 밀집해 있었다. 한 번 휘두른 망에 가장 많았던 것은 암먹부전나비(ツバメシジミ) 16개체, 꼬마부전나비(ハッパシジミ) 1개체, 파리팔랑나비(ホシチャバネセセリ) 3개체 등 도합 20 개체나 됐다. 또 6개체의 가락지나비(テワセンジャノメ)를 한 망에 잡기도 했다. 약 두 시간에 447개체나 채집해 포장용지가 부족할 판이었다. 신종 스나이더어리표범나비(スナイダー—ヘウモンモドキ, 한국생물학회 개정: 경원어리표범나비)를 채집한 곳도 이곳으로 우리는 의외의 수확에 기쁜 나머지 경원에서 오늘 하루 머물기로 했다.

8월 4일(토) 맑음

전날의 진품에 이끌려 같은 지점으로 채집하러 갔으나, 그 신종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길가에 군집한 두만강꼬마팔랑나비(カラフトセセリ)(조선에서는 미기록종), 수풀꼬마팔랑나비(ヘリグロチャバネセセリ), 파리팔랑나비(ホシチャバネセセリ) 등을 마음껏 채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진진하면서 가까운 산 정상까지 올라 갔지만, 기대했던 붉은점모시나비(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는 볼 수도 없었고,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1개체를 산정 근처에서 채집할 수 있었을 뿐이다. 돌아오는 길에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몇 개체와 시가도굴빛부전나비(ウラナミアカシジミ) 1개체가 잡혀 경원에서의 채집에 좋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아무튼 경원 교외의 완만하면서 대규모의 언덕은 붉은점모시나비(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의 산지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전후 이틀 간 우리 둘이서 25~26 마리나 채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오후 5시, 경원역 앞에서 버스를 내려 부근에 있는 桂榮 씨 댁을 방문해, 그의 경험담을 듣고 표본 등을 보았다. 더군다나 그가 채집한 아래 2개의 표본을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1. *Everes argiades amurensis* Rühl-Heyne ツバメシジミ 암먹부전나비
♂ab. 1928. Vii. 종성산
2. *Lycaena pryri* Murray ウラゴマダラシジミ 선녀부전나비

1923. Vii. 20. 성정(城町, 주을 부근)산
오후 7시 50분 경원 출발, 오후 8시 16분 승양 도착.

8월 5일(일) 맑음

오전 7시 20분경, 동척목양장(東拓牧羊場) 견학을 겸해 금월동으로 채집에 나섰다. 천천히 채집하면서 3리 반 길을 네 시간 반 걸었다. 도중에 채집한 품목 중에 꼬리명주나비(ホソテフ)가 지리적으로 흥미를 일으켰다. 더욱이 수 마리의 산부전나비(コシジミ)는 형태도 크고 반점 무늬도 훨씬 발달하여 다른 종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실제로 돌아와서 조사해 볼 때까지도 별종(別種)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목양장 견학이 끝난 게 오후 1시쯤, 오후 2시 51분 승양발 기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 귀로를 서둘렀다. 거의 뛰다시피 했다.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은, 확실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종류의 나비들을 그냥 넘기면서 달리고 있는데, 길가에 앉아 있는 밤오색나비(シロオビコムラサキ)가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이번엔 꼭 잡고 말겠다고 정신을 집중해서 휘두른 망에 많이 잡혀 한 첩의 피로회복제가 되었다. 오후 2시 51분 승양 출발, 오후 5시 15분 웅기 도착. 출구에서 중학교 시절 동창 서상진 군을 만나 그의 집에서 신세를 졌다.

8월 6일(월) 비

8월 7일(화) 맑음

오늘은 오랜만에 날씨가 맑아 서둘러 힘든 난도 행을 계획. 그 지역 財津仁一 씨에게 의뢰해, 내일 이른 아침에 웅기, 서수라 간 연락선(1일 1회 왕복) 제오매환(第五梅丸)으로 웅기에서 난도에, 그리고 당일 저녁 난도에서 서수라로 데려다 주도록 부탁했다. 이처럼 난도행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후, 남은 시간에 웅기령으로 채집에 나섰다.

8월 8일(수) 맑음

계획대로 오전 6시 30분 웅기 잔교 출발, 오전 7시 30분 난도 도착. 어젯밤 그 지역 측후소 발표에 따르면 오늘은 종일 약간 흐린다고 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짙은 안개로 착륙도 곤란할 정도여서 조금은 걱정도 되었지만, 오전 9시 반경부터 쾌청, 채집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다. 등대에 짐을 내려놓고 사방 3분의 1리나 될 것 같은 섬 전체를 돌아다녔지만 전반적으로 접류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가끔 눈에 띄는 것은 해풍에 저항력이 강해 보이는 작은멋쟁이나비(ヒメアカタテハ), 큰멋쟁이나비(アカタテハ), 노랑나비(モンキテフ) 등으로 그 중에서도 작은멋쟁이나비가 가장 많았다. 하루 열심히 채집해 아래 기록대로 5과 12종 53개체를 모았다.

난도 채집 나비 목록 (생략)

흰나비(シロテフ)과 2,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4,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4, 부전나비(シジミテフ) 1,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1.

이상 5과 12종.

(주1) 목록 중에 갈구리신선나비(エルタテハ)는 사실, 잡지 못하고 길가에 있던 날개 조각을 주어서 판단했다.

(주2) 목록 중에 줄점팔랑나비(イチモンジセセリ)를 보면 난도에는 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논밭은 조금도 없는 곳으로 줄점팔랑나비(イチモンジセセリ)는 화본과(禾本科) 식물인 잡초를 먹는 나비일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그 정도의 노력을 난도의 건너편 서수라에서도 투입했다면 족히 500개체는 돌파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 섬의 나비들에겐 특이성이 보이지 않았다. 등대지기인 山口活資 씨는 우리의 채집품을 보고, 난도에도 나비가 있었냐며 감탄할 정도였다. 지난번 기차에서 만난 생도들이 난도엔 목본(木本)이 없다고 한 것은 뭘 모르고 한 소리로, 나는 실제로 찢레나무, 나무딸기 등 목본을 확인했다. 더욱이 이 섬은 갯이갈매기의 보금자리 그 자체인 것 같아, 섬에 대한 많은 것을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 외의 동물에 대해서도 견문하고 싶은 사실들이 있어, 근간에 난도 견문기 같은 것을 써서 적당한 잡지에 실을 작정이다. 오후 5시 30분, 이미 부탁해 두었던 제오매환 배가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배 위에서 난도를 조망하면서 서수라로 향했다. 난도의 접류 채집은 뭔가 부족했지만, 조류 표본이 부족분을 보충해 주었다. 오후 6시 30분 서수라 도착

8월 9일(목) 맑음

어젯밤 12시 반까지 제작한 임시 박제 조류 표본을 발송하는데도, 발송을 취급하는 곳이 없던 탓에 의외로 시간을 소비했다. 오전 11시 무렵에야 겨우 근처에서 채집을 할 수 있었다. 서수라는 조선반도의 동북극단지점이며, 더욱이 우리가 채집하는 지점은 거의 소련 영토와 경계가 되는 곳이다. 이 지점의 채집품만으로 목록을 만드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서수라 채집 나비 목록(생략)

흰나비(シロテフ)과 6,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7,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9,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5,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7. 이상 5과 34종 322개체.

오후 3시 30분 서수라 도보로 출발. 도중에 서포항동 부근에서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한 마리가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횡단하여 날아다니고 있어 뒤를 쫓았지만 잡는데 실패했다. 아쉬움에 근처에서 버틴 결과, 약 40분 사이에 4~5 개체의 본종을 채집할 수 있어 즐거웠다.

오후 7시경, 대암동에 도착했지만 이 마을엔 숙소가 없었다. 주재소에 폐를 끼치는 방법 밖에 없었는데, 우연히 이곳 부락구장 집에서 지방 유지인 김주협 씨를 만나 그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다.

8월 10일(금) 비

8월 11일(토) 맑은 뒤 비

아침에 일어나니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심해, 도저히 예정했던 적도(赤島)엔 갈 수가 없었다. 먼 바다에 있는 난도의 수확품에 특이성이 보이지 않기에 훨씬 가까이 있는 적도엔 그만큼 무리하면서 가고픈 생각이 없었다. 오전 7시 반에 출발해 걸어서 웅기로 향했다. 도중에 채집하며 오전 11시 30분 웅기 도착.

이번 여행지가 국경인만큼 가는 곳마다 다수의 경찰관에게 명함을 뺏겨 이미 명함이 떨어진 탓에 곧바로 명함을 주문. 이것도 국경 지방 여행자에게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다.

8월 12일(일) 맑은 뒤 비

오전 10시 웅기 출발 승합차를 타고 오전 11시 나진 도착. 여관에 짐을 풀고 축항을 향했다. 대초도로 가는 배는 없고 나진 이진 간 1일 2회 왕복하는 대초환(大草丸)이 대초도에 들르는 모양이다. 우리는 운 좋게 오전 11시 30분경에 축항에 도착해 마침 30분 출발

이 지연된 대초환에 승선할 수 있었다. 이 대초도 채집 또한 돌발적인 것으로 우연히 생각 나서 왔기 때문에 온 사실에 만족한다. 승선 한 시간, 오후 12시 30분 대초도 도착. 갑자기 비가 내리기 전까지 약 두 시간 채집했다. 그런데 대초도는 난도 몇 배나 된 큰 섬인 만큼 이하 목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꽤 풍부함을 나타내고 있다.

대초도 채집 나비 목록(생략)

호랑나비(アゲハテフ)과 2, 흰나비(シロテフ)과 2,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6,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6,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4,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5. 이상 6과 25종 217개체.

특히 기뻐던 것은 왕흰점팔랑나비(テウセンオホチャマダラセセリ) 2개체와 만주산어리표범나비(フチグロヘウモンモドキ) 암컷 이상형(異常型)을 채집할 수 있었던 일이다. 오후 4시 대초도 발, 오후 4:45 나진항 착.

8월 13일(월) 맑음

도중에 관동령에서 채집할 작정으로 아침에 두 사람 모두 도보로 길을 나서 웅기로 향했다. 얼마 못 가 장 군은 몸이 아파 채집 불능. 어쩔 수 없이 때마침 달려오는 자동차를 세워 장 군을 다음 도착지인 관곡동으로 태워 보내 놓고 나 혼자 채집을 시도했다. 채집하며 가다 보니 관곡동까지 도착, 먼저 온 장 군도 조금 회복되어 오후 12시 20분 버스로 관곡 출발, 오후 12시 40분 웅기 도착.

앞에서 말한 내 친구 중앙병원장 서상진 씨에게 장 군이 진찰을 받고, 그와 헤어진 후 용정행 표를 구입해 오후 2시 10분 웅기 출발. 지난번 웅기로 오는 중에 지형이 양호하게 보였던 송학과 황파에 하차해 채집할 생각이었다. 오후 4시 7분 송학 도착. 내린 곳이 하필 간이역이라 표는 무효처리 된다고 해 다시 승차.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했다. 오후 4시 30분 신아산 도착. 날 또한 저물어 곧바로 역 근처 언덕에서 채집했다. 그 보람이 있어 미기록종 *Lycaena arcus*(Tab. I. Fig. 3 표면, Tab. II. Fig. 3 뒷면)과 재미있는 암떡부전나비(ツバメシジミ)(p. 126) 2개체를 채집할 수 있었다. 오후 7시 48분 신아산 출발. 차장에게 물어보니 황파 역시 간이역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바로 앞 훈용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오후 8시 52분 훈용 도착

8월 14일(화) 맑음

약 1리 떨어진 마유산에서 채집을 시도했다. 그 산정에는 나비 이외의 곤충이 밀집해 있어 풍부하게 채집할 수 있었다. 그 중에 왕붉은점모시나비(オホ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1개체, 대왕나비(カバイロゴマダラ) ♂ 4개체, 대왕팔랑나비(スギタニセセリ) 1개체를 채집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 더욱 잊을 수 없는 것은 군집을 이룬 소형 접류에게 두 사람 모두 수차례 쏘였던 일이다. 오후 3시 25분 훈용 출발, 오후 4시 24분 풍리 도착. 걸어서 채집하면서 풍서동으로 향했다. 오후 6시 30분 풍서동 도착.

8월 15일(수) 맑음

풍서동은 조선반도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돌출되어 작은 반도를 형성, 주변은 두만강에 둘러싸였으며 면적 사방 약 1리. 서쪽으로 기울고 이름도 모르는 산이 있다. 이 산엔 나비가 풍부해 약 두 시간에 202개체를 채집할 수 있었다. 이곳은 조선극북지점인 만큼 이곳만의 채집품 목록도 의미 있을 것이다.

풍서동 채집 나비 목록(생략)

호랑나비(アゲハテフ)과 2, 흰나비(シロテフ)과 2,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7,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7,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11,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4, 이상 6과 33종.

오전 10시 52분 풍리 발 기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 다시 마라톤. 이 마라톤 거리는 1리가량 되지만 어지간히 격렬했던 모양으로 이때 쏟은 땀의 양은 여행 중 최고기록이다. 오전 10시 53분 남양 도착. 작년 백두산 등산 때 동행했던 김숙보 씨가 남양에 있다는 소식을 경원에서 들어 약간이나마 시간을 할애해 그를 방문. 그의 안내로 걸어서 도문을 건너 13시 40분 도문 출발. 15시 43분 연길 도착. 이미 만주국에 들어서기 때문에 만주 시각에 따라 기차도 움직였다. 버스로 시내로 이동해 여관에 짐을 풀었다. 도시 가까운 곳에는 산이 없고 밭들뿐이어서 채집 할 수 있는 곳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그 지방의 지리, 언어, 풍습에 익숙하지 않으면서 벽지로 나서는 일도 생각해 볼 만한 일로, 연길 채집은 사양기로 했다.

8월 16일(목) 맑음

11시 25분 연길 발, 11시 50분 조양천 도착, 12시 20분 조양천 발, 12시 55분 용정 착. 여관에 도착해 지난번 우연히 기차에서 알게 되었는데 오늘 역으로 나와준 용정 은진 중학생 한위현 군과 논의. 내일 아침 2~3 명 중학생과 함께 1리 반 정도 떨어진 산에서 채집하기로 했다.

8월 17일(금) 맑음

어젯밤 내내 아픈 장 군이 걱정되었지만 아침에 기상해 보니 약간 회복한 것 같아 무리인 줄 알면서도 출발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아침에 다섯 명이 일행이 되어 채집에 나섰지만, 양호한 장소가 없었고 별다른 수확품도 얻지 못했다. 어쨌든 이때 섬 지방은 채집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전한 철도 연선에는 전답뿐이고 채집할 수 있는 곳은 아직까지 안심하고 걸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의미가 없지는 않아서 용정 목록을 첨부한다.

용정 채집 나비 목록(생략)

이 목록과 앞의 목록을 합하면 호랑나비(アゲハテフ)과 2, 흰나비(シロテフ)과 3, 굴뚝나비(ジャノメテフ)과 5, 네발나비(タテハテフ)과 11, 부전나비(シジミテフ)과 8, 팔랑나비(セセリテフ)과 5, 도합 6과 34종이 된다.

오후 1시 35분 용정 출발, 오후 2시 57분 상삼봉 도착, 오후 5시 43분 상삼봉 출발, 오후 9시 4분 나남 도착. 애당초 나남에 온 것은 경원의 桂學 씨의 표본이 이곳 향토관에 진열되어 西元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밤 10시가 넘어 선배인 西元씨를 방문했다. 그 또한 그간 채집 여행을 다니다 오늘 저녁에 막 돌아왔다고 했다. 경원의 학교에서 그에게 보낸 엽서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와 상담, 내일 아침 7시에 향토관에서 만나기로 하고 돌아왔다.

8월 18일(토) 맑은 뒤 흐림

오전 7시 향토관에 가서 약 1시간 반 가량 桂榮 씨가 채집한 표본을 견학하고 난 후, 西元씨의 안내를 받으며 나남중학 박물관실로 가서 표본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보관하고 있

던 학생들의 채집품 중 접류 대부분을 받았다. 돌아온 후 그 표본을 정리했는데 나남산만 6과 104종이었다. 미기록종도 포함된 매우 뜻있는 목록이 작성되어, 그와 공저로 발표하기로 했다. 나남산 이외의 지방과 앞에 기술한 용정산 외 다른 곳에서 채집한 흥미로운 개체 몇 개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Parnassius bremrei ccnjuncta* Staudinger アカボシウスバシロテフ 붉은점모시나비
경원, 1933, viii, 2, 25. 회령 1932, vii, 25.
2. *Eurema hecabe* Linné f. aest. 키테프 남방노랑나비 여름형
경원 1932, viii, 15. 이것이 지리적으로 북방한계선일 것이다.
3. *Midea scclymus* Butler ツマキ테프 갈구리나비
경원 1933, viii, 11. 이것이 8월에 채집되어 신기했다.
4. *Argynnis zenobia penolop* Staudinger ヤマミドリヘウモン 산은줄표범나비 (Tab, 18, Fig, 4, 표면, Tab, 19, fig, 4, 이면)
성진 1934, viii, 10. 이것은 일본에서 최초의 암컷이며 유일한 1개체이기도 하다.
오후 5시 46분 나남 출발, 오후 6시 27분 주을 도착. 오후 7시에 다시 버스를 타고 온보에 도착하다.

8월 19일(일) 맑음

오전 9시쯤, 온보에서 5~6정(町)이나 되는 벽촌에 사는 유명한 인시류 채집가 Alexander M. Yankovsky 씨를 방문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그가 고안한 시설 및 연구하는 모습을 봄.

오전 11시 반 경, 도보로 온보를 출발 주을역으로 향하다. 일행인 장 군이 작년에 채집했던 거의 같은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가네다 온천 바로 앞 산에서 진귀종 주을푸른부진나비(カウライルリシジミ)를 약 20개체나 채집했다. 작년 장 군이 채집할 때 5~50개체 중 암컷은 겨우 3개체뿐이었는데, 이번엔 암컷에 유의한 까닭인지 아니면 시기가 보다 가까워진 탓이었는지 채집품의 암수 비율이 약 반반이었다. 본종은 무척 진귀한 것으로 나는 아직도 이 지점 이외의 지방에서 잡은 본종의 표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후 9시 35분 주을 출발.

8월 20일(월) 맑은 뒤 흐림

오전 7시 19분 원산 도착. 송수원에선 중학교 동창 박취운 군, 명사십리에선 Snyder 씨와 만나 하루를 유쾌하게 지냈다. 오후 10시 43분 갈마 출발

8월 21일(화) 흐림

오전 6시 35분 경성 도착, 오전 11시 23분 경성 출발, 오후 1시 4분 개성 도착

위 기록에서처럼 우리들은 7월 20일 출발해 8월 21일, 정확히 33일째에 돌아왔다. 25일 예정이 33일로 연장된 것은 전적으로 비 날씨 탓이며, 그로 인해 계획했던 지방을 모두 걷지도 못했다. 더군다나 올해는 두 사람 모두 몸이 아파 고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튼 탈 없이, 연일 계속된 비에도 굴하지 않고 이하 목록처럼 6과 121종 3,837개체를 채집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좋은 성적이라 할 만하다. 작년의 예를 생각해서 포장 용지는 7,000장씩이나 갖고 갔지만 수확품은 그때의 반을 약간 넘겼다. 내가 생각해도 작년의 백두산 채집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좋은 성적이었던 것 같다.